

2021. 6. 3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21.5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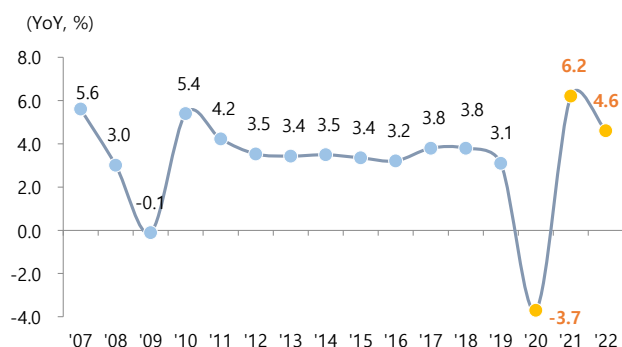
황원정 | 책임연구원(3705-6156)

- **세계(-):** 美유럽 등 선진국 가계소비 확대가 글로벌 경기회복을 지지. 단, 공급 제약 지속과 신흥국 성장 부진(코로나19 확산 지속, 中 정책 정상화 등)은 하방 요인(headwinds)(IPM)
 - **미국(+0.1p↑):** 확대재정 강화, 백신접종 진전에 따른 서비스업 회복 등이 '21.2~3분기 성장을 견인할 전망. Fed는 하반기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 내년 초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할 소지(BofA)
 - IB 대부분은 '22년 초 이후 테이퍼링 시작을 예상하나 일각에서는 고용시장 회복 가속 시 '21.4분기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Citi)
 - **유로존(+0.2%p↑):** 백신접종 가속화 및 코로나19 확산 감소세로 유로존 각국에서 경제 재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견조한 서베이 데이터 등은 하반기 강한 경기 반등을 시사(Barclays)
 - 독일 등에서 기저효과로 물가가 큰 폭 상승했으나, 인플레이션 상승은 전반적으로 일시적이며 ECB의 통화완화 기조도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Citi 등)
 - **중국(-):**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중국의 수출 강세(1~4월 수출 전년동기비 +44%)가 지속되면서 '21년 성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Barclays)
 - **일본(-0.3%p↓):** '21.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5.1%, 전기비 연율). 긴급사태 연장(5/5일 → 5/31일 → 6/20일) 등으로 가계소비가 악화하는 경우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Nomura)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명	2021 ^f	2022 ^f
Barclays	6.5	4.6
BNP Paribas	6.1	4.4
BoA-ML	6.0	4.5
Citi	6.0	4.2
Goldman Sachs	6.6	5.0
JP Morgan	6.6	4.8
Nomura	6.2	4.6
Societe Generale	5.4	4.2
UBS	6.5	5.5
평균	6.2(0)	4.6(0)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전년 대비, 구매력평가(PPP)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각각 전월 전망치 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 대비 변화분(%p)



KCIF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1 ^f	2022 ^f
	21.2Q	21.3Q	21.4Q	22.1Q		
Barclays	11.0	8.0	6.5	2.0	7.1	3.8
BNP Paribas	-	-	-	-	7.1	4.8
BoA-ML	10.0	9.0	5.0	5.0	7.0	5.5
Citi	10.4	4.7	3.9	2.2	6.4	3.3
Goldman Sachs	10.5	8	7	5	7.0	5.1
JP Morgan	10.0	8.3	3.0	3.5	6.7	4.1
Nomura	8.0	5.9	5.8	4.9	6.3	4.6
Societe Generale	6.0	4.3	3.8	2.6	5.4	3.2
UBS	9.9	7.1	8.1	5.3	6.9	5.9
평균	9.5(0.2)	6.9(-0.1)	5.4(0.1)	3.8(0)	6.7(0.1)	4.5(0)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1 ^f	2022 ^f
	21.2Q	21.3Q	21.4Q	22.1Q		
Barclays	4.2	11.9	5.1	3.5	4.2	4.3
BNP Paribas	-	-	-	-	4.2	5.0
BoA-ML	4.3	8.1	5.1	3.1	3.7	3.7
Citi	6.0	10.3	4.3	3.4	4.2	4.2
Goldman Sachs	7.8	12.8	5.3	2.8	5.0	4.5
JP Morgan	7.5	13.5	5.5	4.0	5.0	5.0
Nomura	6.0	10.3	2.7	2.5	4.1	3.5
Societe Generale	5.1	8.9	4.9	2.9	4.0	4.0
UBS	7.0	9.7	7.8	5.4	4.3	5.3
평균	6(0.2)	10.7(0.7)	5.1(-0.4)	3.5(0.1)	4.3(0.2)	4.4(0)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분기별 평균은 전기대비 연율의 산술평균 집계.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1 ^f	2022 ^f
	21.2Q	21.3Q	21.4Q	22.1Q		
Barclays	9.0	7.1	5.5	7.7	9.4	5.5
BNP Paribas	-	-	-	-	9.2	5.3
BoA-ML	(3.0)	(3.0)	(9.0)	(5.2)	8.5	5.5
Citi	8.5	6.0	5.0	5.0	8.8	5.5
Goldman Sachs	7.5	6	4.7	5.8	8.5	5.7
JP Morgan	(5.6)	(5.7)	(5.3)	(5.5)	9.0	5.6
Nomura	8.1	6.4	5.3	6.0	8.9	5.3
Societe Generale	7.3	5.5	5.0	5.0	8.5	5.0
UBS	8.3	6.5	5.6	6.8	9.0	6.2
평균	8.1(0)	6.3(0)	5.2(0)	6.1(0)	8.9(0)	5.5(0)

* 분기별 전망은 전년동기대비, ()는 전기대비 연율. 평균은 전기비연율 값을 제외하고 계산.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분기별 평균은 전년동기대비의 산술평균 집계.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평균의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1 ^f	2022 ^f
	21.2Q	21.3Q	21.4Q	22.1Q		
Barclays	-0.8	10.1	4.7	1.4	2.5	2.7
BNP Paribas	-	-	-	-	3	2.3
BoA-ML	2.8	8.4	3.3	1.8	3.0	3.1
Citi	0.4	3.7	4.0	3.3	2.0	3.0
Goldman Sachs	1.8	5.2	7.8	2.3	2.6	3.3
JP Morgan	1.0	6.0	12.0	2.0	2.8	3.8
Nomura	-0.8	7.8	10.3	5.4	2.5	4.8
Societe Generale	4.5	4.2	1.1	3.0	3.5	2.8
UBS	2.8	4.1	5.2	4.7	2.5	3.5
평균	1.5(-1.6)	6.2(-0.4)	6.1(2.6)	3(0.3)	2.7(-0.3)	3.3(0.4)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56 혹은 wjhwa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